

불자 세상보기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풀었던 것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갑질' 사례가 자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다.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의 항공사 직원 폭행,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승무원 폭행 및 항공기 회항, 국회의원 김현의 대리기사 인격모독, 호텔 직원을 폭행한 호두과자 회사 사장, 김만식 몽고식품 명예회장과 최재호 무학소주 회장의 운전기사 폭언폭행,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면벽대기 근무를 강요한 두산 모토를,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정일선 현대비엔지스틸 사장의 140가지 '갑질' 심부름 매뉴얼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더욱이 전직 국회의장이 절대약자인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하여 법정에서 끌리는 소식까지 들어야 하는 국민들의 기분은 솔직히 말해 '그저 그렇다'.

특수계층의 전유물만은 아닌 것 같다. 직장 종업원이나 백화점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일반인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버스기사를 사정없이 폭행하는 승객 '갑질'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처럼 '갑질'은 이미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감도 좋지 않은 '갑질'이란 단어가 누구나 사용하는 보통명사가 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계약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갑(甲)'이 상대방인 '을(乙)'에게 온갖 횡포를 부리는 일을 빗대어 하는 말인 '갑질'이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든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이는 사회적 인식의 천박함과 불평등의 구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에 의하면 '나를 몰라봐'로 비유되는 우월 콤플렉스는 '이상적인 나(자기)'를 성취하지 못한 좌절감을 불필요한 자기과시로 보상받으려는 병든 심리 상태다. 이렇게 자기를 특별하게 대접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가 기대한 만큼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갑히 네가 나에게'를 외치며 격한 분노를 터트린다. 재벌 2.3세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어중지 않은 '갑질'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우월 콤플렉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우월 콤플렉스는 '이상적인 나'에 미치지 못한 '지금의 부족한 나'에 대한 열등 콤플렉스의 반영일지도 모르겠다. 알프레드 아들러도 우월 콤플렉스와 열등 콤플렉스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붙어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열등 콤플렉스를 현재의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채찍질하는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하고, 나도 모르게 찾아온 우월 콤플렉스를 열등 콤플렉스의 또 다른 한 측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바로 그때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건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쩌면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들은 한쪽의 열등 콤플렉스와 다른 한쪽의 우월 콤플렉스가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실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굳이 <대반열반경>의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實有佛性)'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은 본래의 타고난 인격적 가치를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상식이자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물며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 우월감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특권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잘못된 가치관과 미성숙한 사회화과정에 대한 치료와 재교육의 대상이지 부러워해야 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사람이 귀한 줄 모르거나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다소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보편적 덕성의 회복만이 한국사회의 건강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불자 의원들 '민심이 부처' 임을 알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 열렸다. 이번 선거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여론조사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약진했다. 민심이 현 정부와 여당을 심판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불자 국회의원 55명이 당선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새누리당 지역구 25명, 비례대표 5명 등 총 30명의 불자 의원이 당선됐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구 15명이 당선됐다. 국민의당에서는 지역구 4명, 비례대표 1명이 당선됐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주호영, 강길부 등 3명을 비롯해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해찬(세종특별자치시), 이철규(동해삼척) 등 5명도 당선보를 알

렸다. 이는 18대 총선 46명과 19대 총선 42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개신교측서 기독교적인 소신을 가진 후보들을 뽑겠다고 밝히는 등 차별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당당하게 불자임을 밝히고 얻어낸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 일반적으로 불자 국회의원들은 국회 개원 이후 불교 신행모임 정각회를 구성하며 불교계와 소통하게 된다. 불교의 현안을 듣고 발전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도 가진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등 민생을 먼저 챙기는 것이다. 불자임을 자부하는 국회의원일수록 민심이 곧 부처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마음을 처음과 끝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춘 소통' 젊어진 연등회가 기대된다

전통의 연등회가 '청춘'이라는 새 옷을 입었다. 부처님오신날 불족위원회는 4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연등회와 불족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청춘마당이다. 5월 8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열리는 '전통문화마당'에 신설되는 청춘마당은 파란한 사회에서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 세대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청춘마당은 '어라 스님'으로 잘 알려진 지찬 스님 등 불교 예니메이터그룹이 참여해 감성적인 불교카툰으로 청년들에게 불교를 부드럽게 전할 예정이다. 또 젊은이들이 부담 없이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마음수행법과 힐링아트, 사찰음식 등의 부스도 마련된다고 한다. "불교의 참뜻을 알리고, 어렵지 않은

종교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젊은이들의 문화적 코드에 맞추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주최 측의 설명에 공감의 간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내놓은 <한국인의 종교 1984~2014>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종교인구 감소 부분에서 불교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3040세대 불교인구는 지난 30년간 6%이상 감소하는 등 젊은 세대의 이탈이 3대 종교 중 가장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없다면 그 집단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젊은 세대에 대한 포교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다. 부처님오신 뜻은 기리고 축하하는 연등회 자리에 젊은 층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눈여겨 볼 만 한 일이다. 젊어진 연등회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발언대 한만수 前 교수 해임 논란

동국교수 폭행과 학교 비방을 이유로 해임된 한만수 前 동국대 교수협의회장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상해 혐의 무죄와 징계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앞서 한희원 교수는 한 前 회장이 해임 사유를 애국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문과대학 교수들은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두 성명서를 발췌·정리해 양측 입장을 들었다. <편집자주>

"해임 사유 의도적으로 왜곡"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한만수 前 동국대 교수협의 회장은 해임사유를 잘못 알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동인이 재판받는 형사사건의 유무와는 징계심사에서는 큰 비중을 두지도 않았다. 신성한 교내에서 형사문제를 야기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였다. 또한 국립질서와 학교 공동체에서의 징계처분은 별개의 문제이다. 단적으로 한만수 전 교수는 생명을 건 단식투쟁을 한, 어느 어린 제자의 생명과 신체를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주장을 달성하려고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교 110주년을 눈앞에 둔 대학당국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학교에서는 해임된 교수나 대학 시설물

"진정한 일심동행을 바라며"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34인 대학 당국에서는 지난 3월 17일 교수협의회장 한만수 교수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 징계 처분 사유로 알려진 것은 ①동료교수 상해 행위 ②합법적인 이사장과 총장선임 과정의 부정적 견 견산 ③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이다. 그런데 이 세 사유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①은 비록 형법에 저촉되었다고 하나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한 사건에 불과한데다가 그 '상해 행위'의 사실 여부도 불확실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해임 같은 중대한 처분의 이유가 되기 어렵다. 또한 징계에 따라 ②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요청일 수 있고, ③은 도덕적으로 건전한 대학의 리더십에 대한 열망에서 나온 발언일 수 있다. 따라서 ②, ③을 근거

로 징계를 결정한 것은 대학 당국의 독선적이고 압제적인 태도의 발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대학 당국에서는 한만수 교수를 해임한 데 이어 총학생회 대표들을 종단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학생이 있기에 존재하고 학생 지도가 본업인 대학에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기 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현 총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대학 사회의 단합을 요구하며 '일심동행'을 말해왔다. 대학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은 지금, 일심동행이 대학의 생존에 필요한 철학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법적 권위를 빌려 의의와 반대를 제압함으로써 진정한 단합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어떤 구성원에 대해서든 배제 대신에 포용, 처벌 대신에 설득을 추구하는 것이 대학이라는 공동체의 순리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배성환 (우)03150 서울특별시 중구 우정국로 45-1,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책자 안내 ① 인간의 김홍회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탐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탐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탐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탐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액)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 60팩 80ml×60팩 (IBOX)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